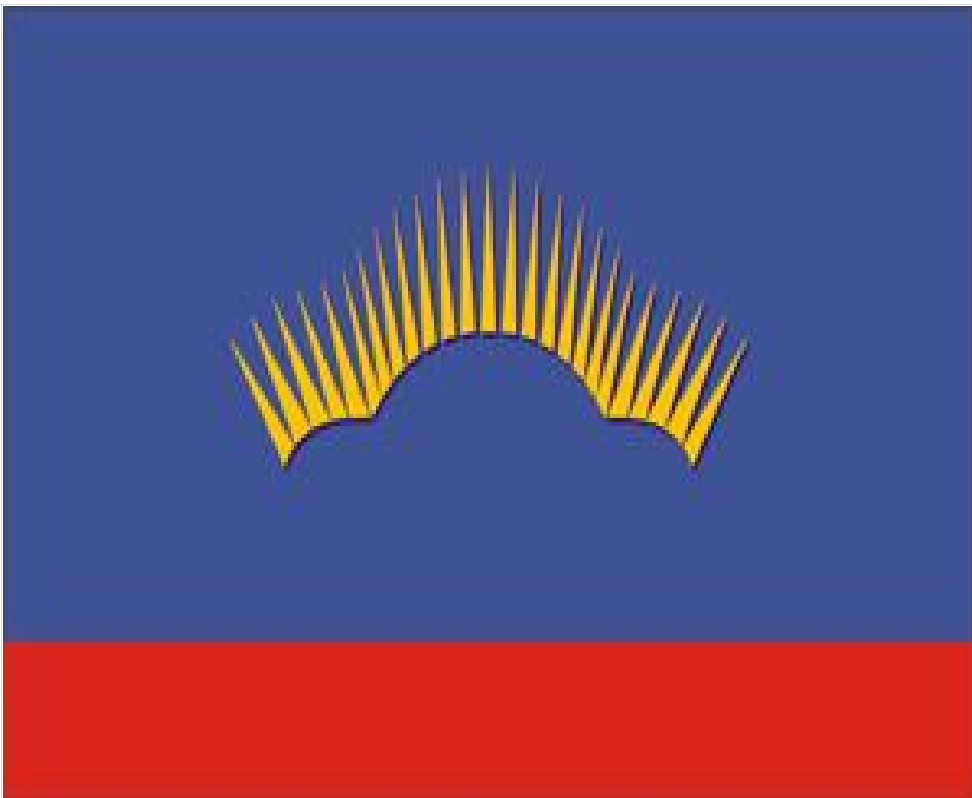


◆ 러시아의 북극 수도
무르만스크 州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목 차

- I. 종합개관
 -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 2. 자연환경
 - 2.1 지형
 - 2.2 기후
 - 2.3 자연환경
 - 3. 주상징
 - 3.1 주기
 - 3.2 주문장
 - 3.3 주훈장
-
- II. 상세개관
 - 1. 역사
 - 1.1 형성
 - 1.2 혁명시기
 - 1.3 제2차세계대전
 - 2. 정치
 - 2.1 입법부
 - 2.2 행정부
 - 2.3 사법부
 - 3. 경제
 - 3.1 주요경제
 - 3.1.1 지역총생산(GRP)
 - 3.1.2 주요산업
 - 3.1.3 주요자원
 - 3.2 수출/수입
 - 4. 사회 문화
 - 4.1 인종 및 민족구성
 - 4.2 교육
 - 4.3 문화/관광명소
 - 5. 유명인사
 - 6. 한국과의관계
 - 6.1 방문교류
 - 6.2 관련사건
 - 6.3 북극항로
- 참고문헌

I.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무르만스크 주는 8개의 러시아 연방관구 중 북서 연방관구에 속하는 주로써 전략적 요충지이다. 북유럽에 속하는 콜라 반도(Кольский полуостров)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44,902km²이다.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카렐리야 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는 북동쪽은 바렌츠 해(Баренцево Море)와 동쪽으로는 백 해(Белое Море)를 각각 끼고 있다. 바렌츠 해와 콜라만은 1년 내내 얼지 않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할 수 있다. 무르만스크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회원국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연방주체 중 하나이다. 또한 무르만스크 주는 아이노브 제도(Айновы острова), 킬딘 섬(о. Кильдин), 셴오스트로보프 제도(арх. Семь островов), 모르조베이 섬(о-в Моржовой), 메드베지이 섬(о-в Медвежий) 등 콜라반도 해변에 위치한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¹⁾

무르만스크주는 주로 북극권의 거의 전역에 해당하는 콜라반도에 위치하며, 북위 68° 02', 동경 34° 34'에 자리한다. 이 지역은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에 걸친 사프미(라플란드) 지역의 일부로, 유럽 북극권의 지정학적·문화적 경계에 속한다. 행정구역상 남쪽은 러시아 카렐리야 공화국, 서쪽은 핀란드 라플란드, 북서쪽은 노르웨이 핀마르크주와 국경을 접하며, 북쪽은 바렌츠해, 동쪽과 남쪽은 백해와 맞닿아 있다. 백해 건너편에는 아르한겔스크주가 위치한다. 지형적으로는 대부분이 구릉지이고, 히비니 산맥과 로보제로 산맥이 서쪽에서

1)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최고봉은 히비니 산맥의 유디흐뵘초르(1,200m)이다. 북부는 툰드라, 남부는 삼림 툰드라와 타이가 지대가 펼쳐져 있다. 주 내에는 10만 개가 넘는 호수와 1만 8,000여 개의 강이 분포한다. 해안에는 리바치반도, 스비야토이 노스곶 등 주요 반도와 곶이 있으며, 아이노브 제도, 볼쇼이 올레니 섬, 킬딘 섬, 말리 올레니 섬, 하를로프 섬, 베스크냐크 섬, 리츠키예 섬, 노쿠예프 섬, 비테 섬, 룬보프스키 섬, 고리아노프 섬, 소스노베츠 섬 등 다양한 섬들이 포함된다.²⁾ 무르만스크주는 모스크바 시간대(UTC+3, MSK)에 속하며, 주도인 무르만스크 시는 북극권 내 최대 도시이다. 또한 이 지역은 전역이 북극권에 포함되어 있어 극야(11월~1월)와 백야(5월~7월)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사프미(라플란드) 지역의 일부로서, 유럽 북극권 원주민인 사미족의 전통 거주지이기도 하다.³⁾

2) 무르만스크주 - Wikiwand

3)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영혼들 '사미인' - .. : 네이버블로그, 2024.05.08.

1.2 일반개황

공식명칭	무르만스크 주(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주 도	무르만스크(Г. Мурманск)
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Север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경제지구	북서경제지구(Север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성 립 일	1916년 10월 4일
면 적	144,900km ² (러시아 연방의 0.8%, 25위)
인 구	688,432명 (2024년 1월 기준)
민족구성	러시아인 89%, 우크라이나인 4.8%, 벨로루시인 1.7%, 기타 4.6% (2010년 인구조사 기준)
주 지 사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 취비스(Andrey Vladimirovich Chibis) 임기: 2019년 3월 20일 - 현재
지역총생산 (GRP)	1조 1275억 루블 (2023년 기준) 1인당 GRP 러시아 연방 내 10위 제조업: 22.4%, 공공 행정: 11.3%, 광물 자원 채굴: 10.4%, 운송 및 보관: 9.5%
주요산업	어업, 광업(니켈, 구리), 해운업, 조선업
주요자원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
주요도시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세베로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 아파티티(Апатиты), 몬체고르스크(Мончегорск), 칸달락샤(Кандалакша), 키롭스크(Кировск)
행정구성	12개의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5개의 자치군(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 출처: 무르만스크 주정부(Murmansk Regional Government), 러시아연방통계청

2. 자연환경

2.1 지형

무르만스크 주는 콜라반도에 있으며 전 지역이 거의 북극권 내에 있다. 현재 해당지역은 일반 관광객들도 출입이 가능하나 무르만스크 주 내의 군사보호지역⁴⁾은 출입증 없이 방문할 수 없다. 무르만스크 지역은 발트판의 일부분으로 10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콜라반도의 중심에는 가장 높은 하빈 산(Хабин)과 산맥이 있다. 무르만스크 주의 대부분은 콜라반도에 있으며 콜라반도와 대륙은 자오선 계곡으로 갈라져 있다. 빙하의 침식작용은 콜라반도 북서쪽에 있는 콜스키, 피첸스크 만에 잘 나타나 있다. 콜라만과 피첸스크 만은 겹으로 보기에 협곡에 위치한 바다로 보이지만, 거대한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피오르드 협곡’이다.

무르만스크 주의 지형은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에는 히비니 산맥(Хибины)과 로보제로 산맥(Ловозерские тундры)이 동서로 뻗어 있다. 이 중 히비니 산맥의 유디흐봄초르(Юдычвумчор)가 약 1,200m로 주 내 최고봉이다. 주 내에는 약 10만 개의 호수와 1만 8,000여 개의 강이 분포하며, 대표적인 호수로는 유르키아미야야르비가 있다. 해안에는 리바치반도와 스비야토이 노스곶 등 주요 반도와 곶이 있고, 아이노브 제도, 볼쇼이 올레니 섬, 킬딘 섬, 말리 올레니 섬, 하를로프 섬, 베스크냐크 섬, 리츠키에 섬, 노쿠예프 섬, 비테 섬, 롬보프스키 섬, 고리아노프 섬, 소스노베츠 섬 등 다양한 섬들이 분포한다.⁵⁾

2.2 기후

대부분의 툰드라 지대는 고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루 중 몇 시간만 태양을 볼 수 있다. 특히, 일 년의 절반 정도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대부분 해가 뜨지 않고 밤이 계속되는 ‘극야현상’⁶⁾이 나타난다. 툰드라에서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낮아져 -30°C 가까이 떨어지기도 한다. 반면 2~3개월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툰드라에도 평균기온이 0°C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이 존재한다. 여름에는 밤에도 밝은 ‘백야 현상’이 계속된다. 최한월인 1월 평균기온은 북쪽지대 영하 8도이고 중부지대는 영하 13도이다. 최난월인 6월의 주 평균기온은 영상 8도에서 14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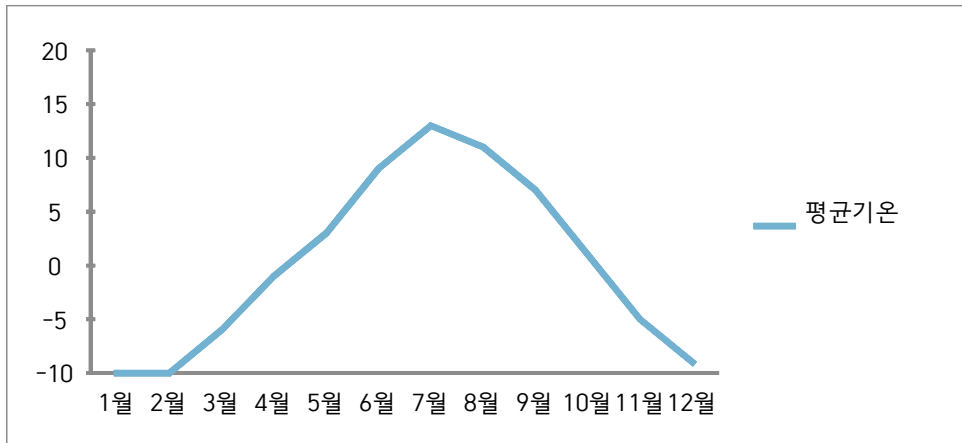
무르만스크 주는 연평균 기온이 약 -0.8°C에서 0.6°C 사이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에 속한다. 1월 평균기온은 -10~-11°C, 7월 평균기온은 12~13°C 정도이며, 7월 평균 최고기온은 17~18°C, 최저기온은 9°C 내외이다. 역대 최저기온은 -39.4°C, 최고기온은 32.9°C까지 기록된 바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491~800mm로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6~9월

4) 무르만스크 주의 군사보호지역(ЗАТО/ZATOs, закрыт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Closed Administrative-Territorial Foramtions)은 Sevromorsk, Shchyukozero, Polyanmy and Gadzhievo, Vidyaevo and Zaosersk, Ostrovnoy 등이 해당된다.

5) 무르만스크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6) 2019년 1월, 무르만스크를 방문했을 때 낮에 햇빛을 볼 수 없는 극야현상이 지속되었지만,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어둡다. 단, 거리의 네온사인 및 가로등, 학교와 공공시설, 체육시설, 커피숍 등 실내 전등은 낮에도 계속 켜다.

에 비가 집중된다. 연평균 강설일수는 약 138일, 눈이 쌓여 있는 기간은 210일에 달하며, 6월에도 눈이 내릴 수 있다. 연평균 일조시간은 약 1,293시간으로, 연중 흐린 날이 많고, 여름철에도 이틀 중 하루 이상 비나 구름이 낀다. 여름에는 최저기온이 7~9°C, 최고기온이 15~18°C에 이르며, 드물게 25°C를 넘기도 한다. 연중 평균 상대습도는 79% 이상으로 높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진다. 강수량은 7~8월이 가장 많고, 2월이 가장 적다. 극야는 12월 초~1월 초(무르만스크 기준 약 40일), 백야는 5월 말~7월 말(약 2개월) 동안 지속된다.⁷⁾



* 출처: climate-data.org

7) 무르만스크 기후 무르만스크 기온 무르만스크, 러시아 날씨 평균

2.3 자연환경

무르만스크 주의 북쪽 지대는 툰드라 지대(Тундра)로 대부분 이끼식물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남쪽 지대는 광활한 침엽수림 지대와 툰드라 지대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툰드라는 '동토 지대' 또는 '얼어붙은 평원'이라는 의미처럼 일 년 중 여름의 며칠을 제외한 250여 일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주로 북반구의 극지역에 분포하는 춥고 넓은 평원에는 낮은 기온 탓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시도 때도 없이 강풍이 몰아치며 밤틀만한 우박이 내리기도 한다.

무르만스크가 위치한 콜라반도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유일하게 타이가(Тайга) 지대가 북극까지 뻗어져 있는 곳이다. 동토지대 위에 자리잡고 있는 숲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무르만스크 주에는 오로라(Полярное сияние)로 불리는 극광현상이 겨울에 자주 나타난다. 오로라는 극지의 아름답고 신비한 현상 가운데 가장 신비하다. 무르만스크 기후는 대서양 난류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다. 이 난류의 영향으로 주도인 무르만스크 내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아 러시아 연방 내 소수의 부동항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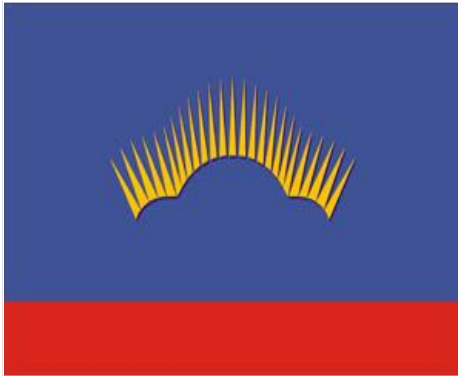
무르만스크 주의 자연환경은 툰드라와 타이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특징이다. 주 북부는 연평균 250일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여름이 매우 짧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 남부와 중부로 내려갈수록 침엽수림에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소나무 등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주 내에는 약 10만 개의 호수와 1만 8,000여 개의 강이 분포하며, 대표적인 호수로는 유르키아미야야르비 호수가 있다. 해안에는 리바치반도, 스비야토이 노스곶 등 반도와 곶, 그리고 아이노브 제도, 볼쇼이 올레니 섬, 킬딘 섬 등 다양한 섬들이 분포한다. 겨울철에는 오로라가 11월~1월 극야 기간에 특히 자주 출현하며, 이 시기에 관측 확률이 높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494mm, 연평균 일조시간은 약 1,293시간, 연평균 강설일수는 138일, 눈이 쌓여 있는 기간은 210일에 달한다. 대서양 난류(걸프 스트림)의 영향으로 무르만스크 항구와 인근 해역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 러시아 북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항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연환경 덕분에 무르만스크 주는 북극권 생태계와 극지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연구의 핵심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3. 주 상징

3.1 주 기

무르만스크 주기는 2004년 6월 1일부터 무르만스크 주 법(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и № 491-01-3M)에 의해 정식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2:3 비율로 제작되었고, 하늘색 바탕에 금색 무늬는 겨울철 밤하늘에 나타나는 오로라 현상을 표현했다. 주기는 상단 4/5는 파란색, 하단 1/5는 붉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란색 띠 중앙에는 금색 오로라(극광) 문양이 가로로 길게 그려져 있다. 오로라는 무르만스크 주가 북극권에 위치함을 상징한다. 붉은색은 용기와 힘, 파란색은 아름다움과 위엄, 금색은 부와 번영을 의미한다.

<주기>



<주문장>



3.2 주 문장

무르만스크 주 의회는 2004년 6월 6일 «무르만스크 주 문장 및 주기법»을 승인 하였고 6월 25일부터 주 문장을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문장은 전체적으로 방패를, 상단 부분은 무르만스크 북극지역의 오로라를, 상하단 부분은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과 닳을 표현했다. 닳은 수산업의 상징이며 곡괭이는 광산, 칼은 군사의 영광을 상징한다. 또한 푸른색은 아름다움과 위엄을 상징하며 빨강색은 용기와 힘, 금색은 부, 은색은 순결을 상징한다.

무르만스크 시는 1971년 도시산업화 목표를 달성한 도시에게 주는 ‘붉은 노동훈장’을 수여받았다. 1982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의 투쟁과 전쟁 이후 생활과 문화적 건설에 일반 시민들의 강인함과 꾸준함을 인정받아 소련정부가 시에 ‘1급 조국전쟁 메달’을 수여하였다. 1985년 소련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조국전쟁 시기 영웅적 투쟁을 한 도시로 인정하여 ‘황금별 훈장’과 ‘레닌메달’과 함께 ‘영웅도시(город-герой)’로 명명하였다.

‘영웅도시’(город-герой) 칭호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독소전쟁) 당시 독일군에 맞서 영웅적으로 저항한 도시들에게 부여한 최고의 명예 칭호로, 무르만스크는 1985년 5월 6일 공식 지정되었다. 영웅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레닌 훈장, 금성훈장, 그리고 특별 증명서(gramota)를 수여받으며, 도시 내에는 영웅도시 기념 오벨리스크가 세워진다.⁸⁾

II. 상세개관

1. 역사

1.1 형성

제정러시아 시기인 1870년대경 북극해의 연안에 도시를 건설하자는 계획이 처음으로 성립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최초로 무르만스크 주 일대에 도착한 사람들은 러시아 제국의 첩보원들로 1912년경 이 지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3년간 콜라만과 바렌츠해를 연결하는 지점에 군사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일대 자연환경을 탐색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로 러시아 제국은 대독연합의 일원으로 카스피해(Каспийское море)와 발트해(Балтийское море)가 봉쇄당했을 때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북빙양으로 진출할 부동항구를 갈망하던 시기였다. 1916년 10월 4일 제정러시아 당국은 현재의 무르만스크 도시 근처 구릉에 키로프 문화과 기술원(Дворец культуры и техники имени Кирова)을 건설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무르만스크 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시 도시의 정체성이 군항도시였기에 바다의 수호성인인 니콜라이 미를린스키(Николай Мирликийский)를 기리는 정교회 사원을 설치했다. 도시는 제정러시아 시기 가장 나중에 건설된 도시로 최초의 이름은 무르만의 로마노프(Романов-на-Мурмане)였다. 그러나 2월 혁명이 일어난 1917년에 도시 이름은 무르만스크로 변경되었다.⁹⁾

1.2 혁명시기

1920년 초, 무르만스크에는 1,5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점점 도시는 쇠락했다. 도시 내 공업은 가내수공업이나 원시적인 협동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요산업인 수산물 매매업마저 퇴보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는 세 개 정도의 거리에 1층짜리 건물과 혼잡하고 더러운 상업지대, 오두막들이 난립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소련정부의 겨울에도 얼지 않는 대형항구 요구 및 주변나라들과의 물류시스템 정비를 위한 전략적 수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1933년부터 무르만스크는 소련해군 북양함대에 선박수리, 대여, 보급품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수산업도 태동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인도가 만들어졌고 이 길을 따라 2-3층짜리 통나무집들이 정연하게 건설되었다. 1927년이 지나고서는 정연한 도시계획 하에 벽돌로 지은 다층 주택이 길을 따라 등장했고, 이는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1934년부터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도시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개통되었다. 동시에 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북극의 화살(Полярная стрела) 철도 노선이 건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 무르만스크의 인구는 약 12만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었다.¹⁰⁾

8) 영웅 도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9) 7) Murmanland, "История города", <http://www.murmanland.ru/history.php>

1.3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무르만스크는 독일군에 의해 공중, 육상 양면으로 공격받았다. 약 15만의 독일 파시즘 군대가 무르만스크 항구를 노리고 진격해 왔으며 총 792회의 공중공격으로 약 18만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1942년 6월 12일 매우 건조한 날씨에 고성능 폭약을 장비한 독일공군의 공중공격으로 무르만스크대부분의 건물들이 화재가 난 사건이다. 이런 피해를 입고도 잘 견뎌낸 무르만스크는 1944년 10월 7일 소비에트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르만스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도시 내 남은 것이라고는 항만시설과 단 3개의 건물뿐이었다. 그래서 1945년 11월부터 시작된 도시 복구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100억 루블이 소요되었다. 1950년에 복구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업시설과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텔레비전 공장 등이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무르만스크 시는 1971년 도시산업화 목표를 달성한 도시에게 주는 '붉은 노동훈장'을 수여받았다. 1972년 안드로포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도시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르만스크에 '영웅도시' 훈장을 수여하였다. 그 이후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이 도시를 방문하였다. 1982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의 투쟁과 전쟁 이후 생활과 문화적 건설에 일반시민들의 강인함과 꾸준함을 인정받아 소련정부가 '1급 조국전쟁 메달'을 수여하였다. 1985년 소련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조국전쟁 시기 영웅적 투쟁을 한 도시로 인정하여 '황금별 훈장'과 '레닌메달'과 함께 '영웅도시(город-герой)'로 명명하였다. 2007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쿠바의 카스트로와 캐나다의 트루도수상, 노르웨이 왕가 일족, 스위스와 핀란드의 수상과 같이 방문하였다.¹¹⁾

1.4 현대

냉전기 무르만스크는 소련 북방함대와 원자력 잠수함 기지로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다.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거점이자 북극항로의 중심 도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발, 국제 에너지·광물 자원 수출, 북극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북극정책의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무르만스크를 방문하여 북극 해군과 지역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다.¹²⁾

11) 김선래, “러시아연방주체 개관시리즈: 무르만스크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7년 8월, 24쪽.

12) 푸틴, 우크라진 휴전협상에 "미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협력할것"(종합) | 연합뉴스, 2025.03.28.

2. 정치

무르만스크 주의 정치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로 산하 부서들을 총괄 지휘 통제한다. 행정부의 주지사가 산하 부서들을 총괄한다. 입법부는 주 의회이고, 수장은 의회 의장이다. 주 의회는 주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며 무르만스크 지역주민을 대변한다. 무르만스크 주 법원이 사법부를 맡고 있으며 이곳에서 민사, 형사 및 행정재판을 한다.

2025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정치 체계는 러시아 연방의 지방자치 개편 정책에 따라 일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청원, 공개 청문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있다. 주 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사회·법제 등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입법 및 감사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연방 상원의원 추천, 주지사 임명 동의, 지역 정책 방향 설정 등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원의원 임명 과정 역시 투명성이 강화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대표를 추천하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2025년부터는 러시아 전역에서 지방자치체 단위(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중심의 행정구역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무르만스크 주의 입법·행정 구조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방과 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1 입법부

2.1.1 무르만스크 주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

무르만스크 주의 입법부는 ‘무르만스크 주 의회(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며, 주 현장에 근거해 독립적 입법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지역 법률 제정, 예산 승인, 행정부 감독, 연방 상원의원 추천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최근에는 상임위원회 체계(경제, 사회, 예산, 법제 등)를 중심으로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를 운영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청원, 공개 청문회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지방자치 개편 정책에 따라 의회 운영 방식과 주민참여 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 중이다.

러시아 연방의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는 미국 기준으로 하원의회에 해당된다. 두마의 총원은 450명이며 이 중 225명은 정당명부제 방식의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나머지 225명은 지역선거로 선출된다. 하원의 권한은 연방 총리 및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 연방 내각 불신임, 사면, 연방 대통령 탄핵, 법안 제출 등이다.¹³⁾ 무르만스크 주의 두마는 법안제출, 현장 채택, 시장 및 위원회임명, 예산결정 등 연방의 대표부 역할을 한다. 무르만스크의 하원의원은 1994년 12월에 구축되었고, 32명의 의원(5년 임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총 회의에 3개월 중 한 번 이상은 참가해야 한다. 최근 하원의원 선거는 2021년 9월에 있었다. 통합러시아당이 25명, 러시아자유민주당 3명, 러시아공산당이 2명, 정의러시아당 1명, 사회정의연금수급자당 1명이 선출되었다. 현재 의장은 세르게이 듀보보우(Sergey Dubovoy), 제1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미쉬첸코(Vladimir Mishchenko), 부의장은 나탈리아 베디쉬체바(Natalia Vedishcheva), 바실리 오멜추크(Vasilii Omelchuk)가 맡고 있다.¹⁴⁾

13) 김선래, 앞의 보고서, 25쪽.

2.1.2 무르만스크 주 연방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임명 절차는 최근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25년 현재, 무르만스크 주 상원의원은 연방 정책과 지역 현안 연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상원의 주요 권한인 예산 심의, 연방 법률 승인, 대통령령 승인 등에서 지역 이해관계 반영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연방-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러시아 연방 상원은 170명의 상원의원(Council of Federation)으로 구성되며 연방주체별로 임기는 상이하다. 상원의원은 러시아 연방 소속 85개의 연방주체들에서 각 2명씩 임명(연방주체 입법부 대표 1명, 행정부 대표 1명)한다. 이들은 연방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전쟁 및 계엄령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해외 파병, 대통령 탄핵, 최고중재재판소 판사들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 및 해임, 법안제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무르만스크 주는 행정부와 의회에서 지명된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활동 중이다.¹⁵⁾ 무르만스크 주 입법부 대표는 구사이코 타티야나 알렉세예브나(Кусайко Татьяна Алексеевна) 상원의원, 행정부 대표는 이고르 콘스탄티노비치 체르니셴코(Чернышенко Игорь Констан -тинович) 상원의원(통합러시아당)으로 활동하고 있다.¹⁶⁾

2.2 행정부

무르만스크의 주행정부는 행정실을 제외하고 14개의 부서(Министерство), 10개의 위원회, 1개의 특별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로는 경제부, 보건부, 산업 및 기업발전부, 건설 및 토지개발부, 국내정책 및 언론부, 경제발전부, 교육 및 사회부, 에너지산업 및 주거설비부, 어업 및 농업부, 사법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 토지 및 재산관련부, 교통 및 도로설비부, 사회발전부 등이 있다. 위원회(Комитет)는 재무, 관세,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노동 및 고용, 농업, 문화 및 스포츠, 인구, 문화 및 예술, 조달청, 예비군 등이 있다. 특별부서(Инспекция)로는 국립주택공급부서가 있다.¹⁷⁾

14) 무르만스크 의회, <https://www.duma-murman.ru/en>

15)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43-44쪽.

16) 러시아연방 의회, <http://council.gov.ru>

17)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무르만스크의 주지사(Губернатор)의 임기는 5년으로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주지사는 2019년 3월 20일, 안드레이 블라디미로비치 취비스(Andrey Vladimirovich Chibis, 2019.03.20 - 현재)가 임명되었다. 안드레이 취비스 주지사는 1979년 3월 19일, 철펜보크사루우(Cheboksary, 불가 강에 있는 Chuvashia공화국의 주도)에서 태어났다. 2001년 모스크바소비자협동대학교(Moscow Consumer Cooperation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3-2018년 건설/주거/시설연방기관에서 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이래로 도시환경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친근한 도시환경조성프로젝트”는 러시아국가프로젝트인 “주거 및 도시환경프로젝트”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2018년 이래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5년-현재, 유엔유럽경제이사회(UNECC,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 ‘주거및토지관리위원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행정부의 주소는 무르만스크 시 레닌로 75 (183006, г. Мурманск, пр. Ленина, 75)이고 전화번호는 (8152) 486-201이며 홈페이지는 <https://gov-murman.ru/>이다.¹⁸⁾

2024년 4월, 안드레이 치비스 주지사가 지역 행사 중 피습을 당했으나, 수술 후 회복해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주지사 임명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만, 최근에는 주민 직접선거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 방식을 병행하는 추세다.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지방자치체 단위(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르만스크 주의 행정부 운영과 주민참여 방식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부 각 부서는 경제, 산업, 보건, 교육, 에너지, 어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18)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www.minstroyrf.ru/en>

<https://eng.gov-murman.ru>,

러시아건설/주거/공익사업부처,

무르만스크 주 역대 주지사

역대 주지사	사 진	경 력
<p>예브게니 보리소비치 코마로프(Комаров Евгений Борисови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2, 트베리 주 출생 -1961, 무르만스크 주의 철도학교 졸업 -1964 철강회사에서 근무 -1985, 레닌그라드 금융경제대학 졸업 -1990, 무르만스크 초대 주지사 임명
<p>유리 알렉세이비치 예브도키모프(Евдокимов Юрий Алексееви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 우크라이나 출생 -1963, 선박및기계 수리전문가 -1970, 드네프르페트로프기계수리대학 엔지니어링학과 졸업 -1996-2009 무르만스크 주지사 임명
<p>드미트리 블라지미로비치 드미트리엔코(Дмит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 우즈베키스탄 출생 -1985, 레닌스코-콤소몰잠수함군사학교 -1999, 크라스노야르 주 주지사 역임 -2009, 무르만스크 주지사 임명
<p>마리나 바실리에브나 코브툰(Марина Васильевна Ковту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 무르만스크 주 출생 -2001, 북서국립아카데미 행정학 졸업 -1991, 콜스키지방행정집행위원회 청소년 부서장 역임 -1994-2005, 무르만스크 주정부 체육, 문화, 관광위원 부대표 역임 -2012-2019, 무르만스크 주지사 임명

2.3 사법부

무르만스크 주는 19세기 후반 북극항로 개발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면서 아르한겔스크 주의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1916년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17년 11월 24일 혁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법원이 무르만스크 주에 설립되었다.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과 1938년 사법부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르만스크 주의 사법부가 현재의 이름인 무르만스크 주 법원(Мурма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уд)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처리 사건은 반 혁명분자와 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형사 사범, 횡령 사건을 포함하는 경제 사범, 정부와 시민 간의 이익충돌을 처리하는 행정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법원 산하에 국경수비 군사법원(Гарнизонный военный суд), 북양함대 내의 군사법원(Северный флотский военный суд), 관할 지방법원(Районный суд, городской суд)이 존재한다.¹⁹⁾

무르만스크 주 법원은 법원장, 부법원장, 판사 및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심 및 2심에서 심리한다. 최근에는 경제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무르만스크 주 중재법원(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и)이 별도로 설치되어, 기업·상사 분쟁은 이곳에서 처리된다. 2003년 이후 러시아 연방법 개정 에 따라,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배심재판 제도가 도입되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판결문 공개 등 사법행정의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 법원은 러시아 연방 최고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РФ)의 감독을 받으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북서 연방관구 법원, 러시아 연방 대법원)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법원장과 판사는 연방 대통령의 제청과 연방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6년(재임 가능)이다.

법원의 주소는 무르만스크 시 푸쉬킨로 3(183038, г. Мурманск, ул. Пушкинская, д. 3) 이고, 전화번호는 (8152)40-09-70, 45-74-84이며 홈페이지는 oblsud.mrm@sudrf.ru이다.²⁰⁾

19) 김선래, 앞의 보고서, 30-31쪽.

20) 무르만스크 주 법원, <http://oblsud.mrm.sudrf.ru>

3. 경제

무르만스크 주의 경제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 1%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많은 천연자원 매장량과 발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북극항로의 물류기지, 희토류 생산기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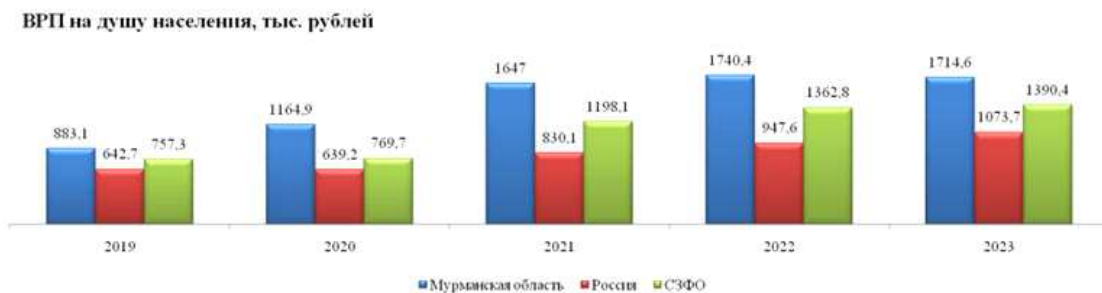
3.1 주요경제활동

3.1.1 지역총생산(GRP)

2023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은 1조 1274억 9730만 루블(약 15조 2,679억 원)이고, 1인당 GRP는 1714천 6백 루블이며 러시아연방 내 10위를 차지하고 있다.²¹⁾ 이는 러시아 연방의 북서관구에서 네네츠를 포함한 아르한겔스크(1조 2630억 루블), 볼로그다(1조 818억 루블), 코미 공화국(1조 493억 루블)와 비슷하다.²²⁾ 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르만스크 주는 2019년 883.1천 루블에서 2023년 1,714.6천 루블로 꾸준히 경제가 성장한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은 무르만스크 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며, 1인당 GRDP 또한 러시아 전체 평균과 북서 연방관구 평균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르만스크 주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실업률은 2.6%으로 북서연방관구에서 아르한겔스크(네네츠 제외) 2.8%, 볼로그다 2.5%, 칼리닌그라드 2.5%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로, 같은 연방관구 내에서 칼레리야(4.1%), 네네츠(5%)이다.²³⁾

무르만스크 주 1인당 지역 총생산(GRDP)

단위: тыс. рублей



* 출처: 무르만스크 주정부 경제부, <https://minec.gov-murman.ru>

21) 무르만스크 주정부 경제부, <https://minec.gov-murman.ru>

22) 20)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17) CEIC, <https://www.ceicdata.com/en/russia/unemployment-rate-by-region-annual>

3.1.2 주요산업

무르만스크 주 지역경제는 광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440개의 미량원소(microelement) 가운데 220개가 콜라반도에서 발견되었고, 인회석, 희토류 등 60개 이상의 희귀광물이 있다. 또한 지역총생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총생산에서 제조업: 22.4%, 공공 행정: 11.3%, 광물 자원 채굴: 10.4%, 운송 및 보관: 9.5%를 차지하고 있다.²⁴⁾

가. 광업

무르만스크 주에서 광업은 제 1의 산업이며 연방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는 인산염 연방 내 수요의 100%, 금운모 90%, 하석과 세라믹 원료 35%, 니켈 45%, 구리 7% 등 많은 자원을 공급한다. 무르만스크 주는 콜모제르스키 리튬 광산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 광산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리튬 매장지로 평가되며, 연간 45,000톤의 리튬 및 수산화리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리튬 수요의 55%를 충족할 계획이다. 또한, 북극해 대륙붕 자원 탐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속적인 자원 탐사를 통해 무르만스크 주의 자원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2025년 러시아 정부는 무르만스크 주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로보제르스키·아프리카드 광구 등에서 세륨, 란탄, 네오디뮴, 이산화티타늄, 니오븀, 탄탈륨 등 고부가가치 광물의 정제 및 가공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최근 콜모제르스키 리튬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무르만스크 주는 러시아 내 리튬 공급의 55%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극해 대륙붕 자원 개발과 관련해 무르만스크 주는 러시아 북극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어, 천연가스, 석유, 희귀광물 등 자원의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업산업의 자동화와 친환경 기술 도입, 지역 내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화·현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²⁵⁾

18) 무르만스크 주정부 경제부, <https://minec.gov-murman.ru>

25) Карта сайта(무르만스크 주정부 경제개발부 공식자료).

현재 광업 및 에너지 개발 분야에 중점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사진: 무르만스크 주정부 공식홈페이지, <https://eng.gov-murman.ru>

- JSC "Kovdorsky ore-dressing plant", 184141, Murmansk region, Kovdor, Sukhacheva St.,5, tel:(81535) 7-60-01, fax:7-27-63, E-mail: fax@kovgok.ru (iron-ore concentrate)

- JSC "Olenegorsky ore-dressing plant", 184533, Murmansk region, Olenegorsk, Leningradsky ave, 2, tel:(81552) 5-82-36, 5-51-00, fax:5-82-52, E-mail: asu@olcon.ru(iron-ore concentrate)

- JSC "Kola mining-metallurgical company", 184507, Murmansk region, Monchegorsk-7, tel:(81536) 7-72-01, fax:7-99-86 E-mail: sn@sn.nornik.ru(nickel, copper)

- Branch of JSC "Sibirsko-Uralskaya aluminium company" "Kandalaksha aluminium plant SUAL", 184046, Murmansk region, Kandalaksha, Kandalakshskoe shosse St, 1, tel:(81533) 9-20-47, fax:9-52-61, E-mail: kaz@kaz.ru(aluminium)

- JSC "Apatit", 184250, Murmansk region, Kirovsk, Leningradskaya St.,1, tel:(81531) 5-55-90, fax:3-52-09, (495)784-78-11, E-mail: spozolotina@apatit.com (apatite and nepheline concentrate)

- JSC Territorial generating company №1 branch "Kolsky", 184355, Murmansk region, Kolsky district, Murmashi, Kirova St., 2, tel:(81553) 6-88-59, 6-83-29, fax:(8152) 48-27-00, E-mail: common@kola.tgk1.ru(electroenergy)

- GOUP "Murmanskvodokanal", 184038, Murmansk region, Dzerghinskogo St,9, tel:(8152) 21-37-01, fax:4728-98(watersupply)

- Branch of the concern "Rosenergoatom" "Kolskaya atomic station", 184230, Murmansk region, Polyarnie Zori, tel:(81532) 7-83-59, fax:7-81-40(electroenergy)

- CJSC "North-Western Phosphorous Company", 184209, Murmansk region, Apatity, Lenina St, 22, tel/fax:(81555) 2-71-89, 2-71-99, E-mail: info@szfk.biz(apatite ore)

- LLC "Lovozersky ore-dressing plant", 184580, Murmansk region, Revda, Komsomolskaya St, 23, tel:(81538) 4-31-34, fax:(81538) 4-35-29, E-mail: oolgotok@mail.ru(loparite concentrate)²⁶⁾

나. 수산업

무르만스크 주에서 수산업은 가장 전통적인 산업이자 지역적 특색이 묻어 있는 산업이다. 2023~2025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수산 관련 기업들은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약 1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총 어획량은 약 60만~70만 톤에 달한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명태, 대구, 청어 등 냉동 어류와 생선 핼렛, 어유, 어분 등이 있으며, 트롤어업 기지와 러시아 최대의 어업 콤비나트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연어·송어 등 양식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르만스크 항구를 통한 수산물 가공 및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킹크랩 어획 및 조선업 연계가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킹크랩 어획의 쿼터 배분과 어선 건조 투자 계획이 서로 연계되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킹크랩 어선 건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조선업과 어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동 및 북서 지역에서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무르만스크 주 수산업은 지속적인 현대화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정부는 '수산물 고부가가치 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어선 자동화·위성 어장관리, 스마트 양식장 등 첨단 기술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대한민국 등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무르만스크산 수산물의 약 35%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²⁷⁾ 또한, 친환경·지속가능 어업 인증(예: MSC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러시아 연방의 '북극 수산업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어선 자동화·위성 어장관리, 스마트 양식장 등 첨단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 어업인 육성, 수산물 브랜드화('Arctic Fish Murmansk' 등) 정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26)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27) Карта сайта((무르만스크 주정부 공식 통계)

무르만스크 주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사진: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 JSC "Murmansk trawling fleet", 183038, Murmansk, Shmidta St., 43, tel:(8152) 28-81-11, fax:28-80-70, E-mail: mtf@mtf.ru(trade food fish products)
- NGO "Union of Fishermen of the North-trade association", 183038, Murmansk, Egorova St.,6, tel:(8152)47-67-28, fax:47-69-40, E-mail: souzrps@an.ru
- JSC "Nord-west Fishing Company",183039 Murmansk, Rogozerskaya St.,15, tel:(8152)45-53-94, fax:44-73-92, E-mail: sales@nordwest-fc.ru(trade food fish products)
- NGO "Association of the coastal fishing industrialists and farms of Murman", 183010 Murmansk, Frunze St, 39-1,2, tel/fax:(8152)25-48-60, E-mail: coastmurman@gmail.com(Association of the coastal fishing industrialists in Murmansk region)
- CJSC "Taurus", 183038, Murmansk, Shmidta St, 43, tel:(8152) 99-48-99, fax:(8152) 45-98-94(trade food fish products), E-mail: mtf-group@uk.msk.ru
- CJSC "Fenix", 183038, Murmansk, Shmidta st, 43, tel:(8152) 28-81-70, fax:(8152) 45-74-80(trade food fish products)
- LLC "Robinzon", 183001, Murmansk, Podgornaya St, 45, tel:(8152) 23-69-99, fax:(8152) 45-81-40(trade food fish products), E-mail: robinzon@aspol.ru
- PLC "Russky Losos", 184402, Murmansk district, Liinhamari, Severnaya St, 1, Murmansk subsidiary: Lenina Ave, 16A, tel:(8152) 55-11-20, (8152) 55-11-22, fax:(8152) 45-57-66 (fish farming)
- LLC "Russian Sea Aquaculture", 183001, Murmansk, Komintern St, 7, tel. (8152) 68-50-25, E-mail: aqua@russianseagroup.ru(fish farming)²⁸⁾

28)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다. 해운업 및 물류

무르만스크 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르만스크 항구(Мурманский морской порт)로 러시아 연방 내 부동항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그래서 이 항구에 모든 러시아 국적의 원자력 쇄빙선이 모여있다. 그래서 2007년 5월부터는 연방정부는 무르만스크 항구를 경제자유지대로 선포했다. 이 항구는 어업, 무역, 승객 운송의 세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희토류, 석탄 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항구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도로와 항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르만스크 주의 물류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크다. 무르만스크 주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노르웨이를 잇는 M18 연방도로(Федераль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Кола»)가 위치해 있다. 또, 2005년에는 콜라 만을 가로지르는 북극연안에서 가장 긴 다리가 개통했다. 무르만스크 공항은 무르만스크 시에서 24km 떨어진 무르마시(Мурмаши)면에 위치해있으며 매일 모스크바 행, 상트 페테르부르크 행 비행기가 이륙한다. 연방 내 2개 특별시 행 외에도 다른 도시로 가는 노선과 노르웨이로 가는 국제선이 취항해 있다.²⁹⁾ 또한, 북극항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북극해의 빙하 감소로 인해 항해 가능한 일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항로를 통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북극항로는 무르만스크 주의 해운업과 물류 산업에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르만스크 항구는 러시아 북극항로(NSR,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현대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무르만스크 항구의 연간 화물 처리량은 약 6,00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석탄, 광물, 희토류, 수산물, 컨테이너 화물 등이 주요 품목을 차지한다. 2024년부터는 북극항로를 통한 러시아-아시아(특히 중국, 대한민국, 일본) 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르만스크는 북극권 최대 환적항으로서 국제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³⁰⁾ 항만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는 2030년대 초까지 원자력 쇄빙선 7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LNG 벙커링 터미널, 첨단 물류센터, 디지털 통관 시스템 등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현대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일부 신규 인프라가 운용 중이고, 다수는 건설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국제 해운사와의 협력, 북극권 항만 간 항로 연계, 친환경 선박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무르만스크 공항은 2024년 기준 연간 여객 120만 명을 돌파했으며, 국제선 노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항만·공항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북극권 스마트 물류 플랫폼 도입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29) 김선래, 앞의 보고서, 38-39쪽.

30) 61030632982 - объявления о несостоятельности - Коммерсантъ

무르만스크 주에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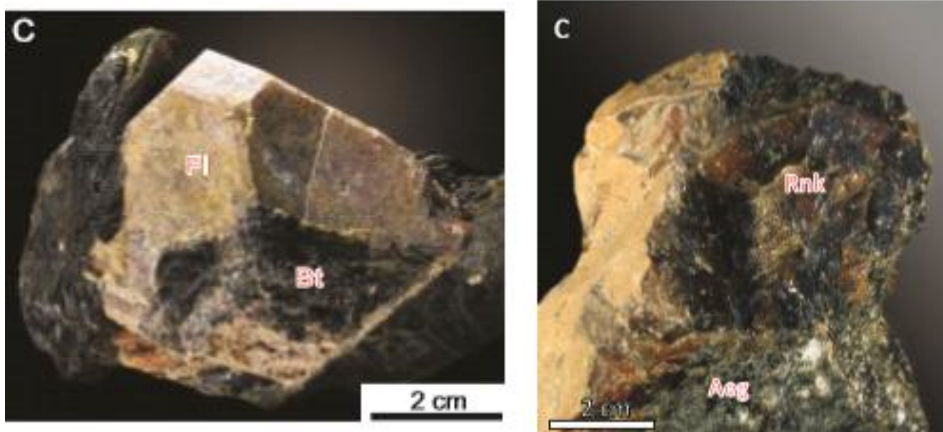
* 사진: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 JSC "Murmansk Marine Fishing port", 183001, Murmansk, Tralovaya St.,12, tel:(8152) 28-72-22, 47-72-81, fax:28-65-00, E-mail: mail@mmlrp.murmansk.ru (marine transport)
- PLC "Murmansk Marine Commercial port", 183024, Murmansk, Portovy proezd, 19, tel:(8152) 48-06-44, fax:48-04-99, E-mail: office@portmurmansk.ru(marine transport)
- LLC "Kandalaksha Marine Commercial port", 184042, Murmansk region, Kandalaksha, Belomorskaya St.,19r, tel/fax:(81533) 9-31-38, E-mail: info@portofkandalaksha.ru(marine transport)
- JSC "Murmansk shipping company", Murmansk, Komintern St., 15, tel:(8152) 48-10-11, fax:48-11-48, E-mail: postmaster@mSCO.ru(marine transport)
- JSC "Russian railways", 183865, Murmansk, Privokzalnaya St., 15, tel:(8152) 48-42-92, fax:47-65-79, (railway transport)
- JSC airport "Murmansk", Murmansk region, Kolsky district, Murmashi, tel:(8152) 28-12-54, fax:28-14-62, E-mail: airport@online.ru(air transport)
- FSUE "Atomflot", 183017, Murmansk, tel:(8152) 55-33-55, fax:(8152) 55-33-00, E-mail: general@rosatomflot.ru(technological service and maintenance of nuclear-powered icebreakers and special fleet)
- JSC "Murmansavtotrans", Murmansk, Tersky per.,8, tel:(8152) 42-09-25, fax:42-11-54, E-mail: murmanskvto@com.mels.ru(automobile transport)
- JSC "Electrotransport", 183008, Murmansk, Sverdlova St, 49, tel:(8152) 65-31-08, fax:(8152) 65-31-12, E-mail: contacts@murmansktrolleybus.ru
- JSC "Rostelecom", Murmansk branch, Murmansk, Lenina ave, 82a, tel:(8152)45-45-45, fax:45-00-45, E-mail: office@mr.nw.rt.ru(telecommunication)
- Administration of the federal postal service of the Murmansk region - branch of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Post of Russia", 183038, Murmansk, Leningradskaya, 27, tel:(8152) 45-32-49, fax:45-09-01, E-mail: kanc@FSPS-MO.ru ((postal service)
- LLC "Oil terminal Belokamenka", 183010, Murmansk, Marata St, 26, tel:(8152) 69-33-10, Fax:(8152) 69-33-17, E-mail: office@belokamenka.femco.ru(transshipment of oil products)
- Rosatom Group - Arctic logistics and fleet services, Murmansk branch, tel: (8152) 55-33-55, E-mail: general@rosatomflot.ru (nuclear-powered icebreaker operation and Arctic logistics support)
- LLC "Northern Transport Logistics", Murmansk region, tel: (8152) 00-00-00, E-mail: info@northernlogistics.ru (specialized Arctic and multimodal transport services)
- LLC "Arctic Cargo Solutions", Murmansk, tel: (8152) 00-00-01, E-mail: contact@arcticcargo.ru (cargo handling and logistics for Northern Sea Route)³¹⁾

3.1.3 주요자원

무르만스크 주의 주요 자원은 먼저 바렌츠 해 대륙붕에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리, 철, 니켈, 코발트, 티탄 등 전체 화학원소의 1/4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인산광, 하석, 바델레이아이트(Baddeleyite)의 경우 러시아 연방 내에서 유일하게 무르만스크에서만 채굴되고 있다. 또한 금운모, 질석 등도 연방 총 채굴량의 80-90% 가량 채굴되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의 희토류는 네팔라인사이언나이트(유리 및 세라믹 산업원료)와 암석(foiolite)에 밀집되어 있다.³²⁾

* 사진: Kalashnikov 외 다수(2016)



그밖에도 무르만스크 주에는 희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희토류는 지난 2010년 9월 중국의 희토류 대 일본 수출 중단조치 등으로 유명해진 자원으로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희토류는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다. 따라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의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 실제로 희토류는 그 이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구상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일례로, 원자번호 58번인 세륨은 지각 내 함량이 68ppm으로 지각에서 25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희토류 중 가장 매장량이 적다고 알려진 툴륨과 루테튬의 경우는 금보다 200배 이상 매장량이 많다.

무르만스크 주는 러시아 희토류 매장량의 약 51.4%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생산 광산은 Lovozerskoye(로보제르스크코예) 광산이다. 이곳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터빈, 항공기 엔진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지정하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무르만스크 주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러시아 희토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방대한 희토류 매장량과

31)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32) Kalashnikov, Konopleva, Pakhomovsky, Ivanyuk, "Rare Earth Deposits of the Murmansk Region, Russia-A Review",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Inc. Economic Geology*, Vol. 111, November 2016, p. 1533.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채굴·정제 기술과 산업 수요, 그리고 관련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과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희토류 생산은 여전히 Lovozersky 광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르쿠츠크(Zashikhinsky), 야쿠티야(Tomtor) 등 다른 주요 매장지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희토류 광물의 채굴, 가공,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까지 산업 전반의 기반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서방의 제재와 기술 장비 수입 제한, 그리고 내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 확대가 계획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무르만스크 주는 러시아 희토류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전략적 자원 공급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적 파급력과 세계 시장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희토류를 활용한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정도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북극 자원 개발 전략(Арк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2035)에 따라 무르만스크 주의 자원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8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무르만스크 북동부 해상에서 '북극광-2'(Арктик Свет-2) 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 예상 매장량은 1.2조 m³에 달한다. 희토류 분야에서는 로보제르스크에 광산 외에도 콜모제르스키 리튬-희토류 복합광산 개발이 2024년 말 착공되어, 2030년까지 연간 니오븀 5,000톤, 탄탈륨 1,200톤, 리튬 45,0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정부는 최근 광산 자동화와 AI 기반 광상 분석 플랫폼 등 첨단 채굴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으며, 친환경 광산 인증제도(ESG)와 유럽 표준 도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방의 기술 수출 제재로 고순도 희토류 정제 설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2024년 11월 중국 Sinochem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연간 1만톤 규모의 희토류 정제 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무르만스크 항구의 희토류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은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28~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³⁾

3.2 수출/수입

2020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교역 규모는 50억 6천만 달러(US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서연방관구 전체 교역에서 약 4~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무르만스크 주는 70여 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교역상대국은 유럽 국가들이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전체 교역의 40%로 1위, 스위스가 20%로 2위를 차지했다. 무르만스크 주의 주요 교역 품목은 “비철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67%)과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16%)이며, 이 두 품목이 전체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액은 47억 3천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출 주요 품목 역시 “비철금속 및 비철금속 제품”(71%)과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16%)이 중심을 이룬다. 국가별 수출 구조에서는 네덜란드가 43%로 1위, 스위스가 21%로 2위이다. 수입액은 3억 2,7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약 6% 수준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조리식품, 음료, 주류 및 식초, 담배”(23%)와 “기계 및 기계 기기, 전기 장비, 음향 및 텔레비전”(20%) 등이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전체 수입의 42%로 1위, 스웨덴이 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무르만스크 주의 15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으로, 2020년에도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은 과거와 유사하게 금속, 광물, 기계설비, 식품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는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⁴⁾

33) Monthly Highlights from the Russian Arctic, February 2025 - etc.bellona.org

2022년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로 인해, 무르만스크 주의 교역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전통적 교역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국, 인도, 터키, 한국 등 아시아·비유럽권 국가와의 무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전체 수출 중 약 30%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북극항로(NSR) 활성화에 따라 중국·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희토류, 리튬, 니오븀 등 첨단산업용 원료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냉동수산물, 킹크랩,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등도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무르만스크 항구의 희토류 전용 터미널은 2025년 6월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28~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귀금속 및 첨단소재의 아시아 수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무르만스크 주는 기계설비·전자부품 등 전략 품목의 국산화와 아시아·중동 국가로부터의 대체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교역 다변화 노력은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4) Ru-Stat, <https://en.ru-stat.su/date-Y2020-2022/RU47000/import/world>

35) 러시아 북극의 월간 하이라이트, 2025년 3월 - etc.bellona.org

4. 사회-문화

4.1 인구 및 민족 구성

무르만스크 주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4년 1월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인구는 688,432명으로, 1989년 1,146,757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매우 높아 2002년 기준 92.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약 5명 수준이다. 2016년에는 8,500명이 출생했고 같은 해 8,700명이 사망해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도 출생(5,108명)보다 사망(8,068명)이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무르만스크 주의 민족 구성은 러시아인이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 4.8%, 벨라루스인 1.7%, 타타르인 0.8%, 핀란드인 0.5% 순이다. 이 외에도 카렐인, 노르웨이인, 코미인, 사미인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선주민인 사미인은 현재 약 1,600명으로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이다.

4.2 행정구역

무르만스크 주는 12개의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와 5개의 군(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로 구성되어 있다. 무르만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Мурманска), 아파티타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Апатиты), 키로프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Кировск), 세베로모르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ТО город Североморск)가 주요 4개의 도시이다.

그밖에도 코브도르스키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Ковдорский район), 몬체고르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Мончегорск), 올레네고르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Оленегорск), 폴랴르니 조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Полярные Зори), 알렉산드롭스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ТО Александровск), 파솔로크 비다예보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ТО посёлок Видяево), 자아조로크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ТО город Заозёрск), 아스트로브노이 시(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ТО город Островной)가 있다.

무르만스크 주에 칸달라크시스키 군(Кандалакш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콜스키 군(Коль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라바제르스키 군(Ловозер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피첸스키 군(Печенг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테르스키 군(Тер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등 5개의 군이 있다. 각 군은 여러 개의 중소도시, 읍, 농촌 정착지(посёлок, село)로 세분화된다.

2025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행정구역은 러시아의 지방자치체 단위(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도시구에는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아파티티(Апатиты), 키로프스크(Кировск), 세베로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 몬체고르스크(Мончегорск), 올레네고르스크(Оленегорск), 폴랴르니에 조리(Полярные Зори), 알렉산드롭스크(Александровск), 오스트로브노이(Островной), 자오조르스크(Заозёрск), 비다예보(Видяево) 등이 있다. 이 중 알렉산드롭스크, 오스트로브노이, 세베로모르스크, 자오조르스크, 비다예보 등은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군사시설이 위치한 폐쇄도시(ЗАТО, Закрыто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2024년 기준, 무르만스크 주의 행정구역은 러시아 연방 통계청(Росстат)과 주정부 공식 자료 모두 지방자치체 단위(муниципа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정구역(행정군, 도시정착지 등)은 점차 통합·폐지되는 추세다. 또한, 무르만스크 시(Мурманск)는 주도이자 최대 도시로, 2021년 인구 약 2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 아파티티, 세베로모르스크, 칸달락샤, 몬체고르스크, 키로프스크 등도 인구 3~6만 명 내외의 주요 도시로 꼽힌다.

4.3 교육

무르만스크 주의 교육시스템은 크게 미취학 아동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미취학 아동교육기관(Учреждения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은 약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이용 아동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이 중 일부는 사립기관이며, 국방부(북방함대) 소속 기관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등교육기관(Учреждения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은 180~190개 내외로, 주간학교와 야간학교가 모두 운영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의 교육 디지털화 정책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학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인구 감소로 점차 줄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직업교육기관과 대학교로 구분된다. 직업교육기관(Учреждения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에서는 약 4만 명 내외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심리·의료·교육전문센터(Центры психолого-медико-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대학교(Университеты, Академии, Институты)는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르만스크 시에 다수가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무르만스크사범대학교(Мурм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와 국립무르만스크기술대학교(Мурм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가 여전히 지역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서 IT 및 디지털 교육,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³⁶⁾

최근 무르만스크 주의 교육 시스템은 러시아 정부의 교육 디지털화 정책에 따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디지털 학교’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원격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T·프로그래밍·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 과정이 신설·확대되고 있어, 지역 학생들의 첨단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무르만스크 주는 북극권 특성에 맞춘 북극 생태·환경, 극지 과학, 해양공학 등 특화 교육과정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대학과의 교류·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장학금 확대, 기숙사 확충, 지역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36) 김선래, 앞의 보고서, 47-48쪽.

4.4 문화/관광명소

약 75년간 폐쇄적인 지역이었던 무르만스크 주는 19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랜 전부터 콜라반도에 사미족이 살고 있었으며 15-16세기 포모르스인(Pomors)들의 거주지였다. 현재 무르만스크 주의 현대문화는 고대 사미인들과 포모르스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무르만스크 주 내에는 11개의 박물관이 있고, 3개의 극장이 있다. 또한 168개의 도서관이 있고, 70개 이상의 민속문화센터가 있다. 852개의 역사/문화/고고학에 관한 기념비가 있으며 96개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고학으로는 백해와 바렌츠 해 인근에 암각화가 있다. 예술팀은 25년 이상 콜라반도에서 “Barents Euro-Arctic Cooperation”이라는 주제로 문화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북극권 도시가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지역문화의 날(Regional Culture Days)을 기념하기도 했다.³⁷⁾ 무르만스크는 오로라 관측지로도 유명하다. 겨울철, 특히 극야 시즌인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오로라를 관측할 확률이 높다. 이 시기에 무르만스크는 밤이 길고 하늘이 어두워져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오로라는 테리베르카 마을과 같은 외곽 지역에서 특히 잘 관측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은 어두운 하늘과 맑은 날씨로 인해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꼽힌다.

최근 무르만스크 주는 북극권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무르만스크 시와 테리베르카, 키로프스크 등지에는 북극권 특화 박물관, 민속체험관, 북극 해양박물관, 사미 민속마을 등 신규 관광 명소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테리베르카(Teriberka)는 오로라 투어와 함께 러시아 영화 <레비아탄(Leviathan)>의 촬영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매년 ‘북극 오로라 축제’와 ‘테리베르카 뮤직&씨푸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키로프스크의 ‘설꽃축제’(Снежный цветок), 무르만스크 시의 ‘북극의 날’(День Арктики), ‘바렌츠 해 국제 오로라 포럼’ 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2025년에는 북극권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과의 연계 관광상품, 크루즈, 트레킹, 북극 해양 체험 등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사미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사미 문화주간’, 북극권 다문화 축제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지역 예술가와 청년들의 창작 활동 지원, 디지털 아트·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37)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무르만스크 시 주요관광지

명칭	사진	상세내역
<p>핵추진 쇄빙선 레닌 (Nuclear Icebreaker Len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7년 건조된 세계 최초의 핵추진 쇄빙선(강력한 우라늄) -입장료:내국인 150루블 외국인 500루블 -입장시간:12시, 2시, 4시 (내부안내자 따라 내부 관람)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 -주소:Portovyy Proyezd, 25
<p>알료사동상 (Alyosha Stony Vis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명칭: 소비에트 북극방어자 -대조국전쟁 당시 독일공격 때 항구와 도시를 지킨 무명용사를 기리는 목적으로 1974년 건립 -7m 높이 기반석 35m 높이 병사 동상 -‘꺼지지 않는 불꽃’도 있음 -주소:Borovaya Ulitsa
<p>Church of the Saviour on the Waters and Lighthouse Monu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 건립된 교회, 등대기념비 -2000, 바렌츠해 해군훈련 중 쿠르크스잠수함 폭발로 118명 사망 추모를 위해 건립 -주소:Prospekt Geroyev Severomortsev, 1
<p>지역박물관 (Regional Studies Muse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르만스크 지역의 다양한 광물, 동/식물, 소비에트전시 등 -대부분 러시아어로 설명 -관람시간:토~수요일(11시~18시) -주소:pr Lenina 90
<p>지역예술박물관 (Fine Arts Muse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전시 -북극풍경화도 전시 -관람시간:수~일요일(11시-7시) -주소:ul Kominternu 13

5. 유명인사

이름	사 진	활동내역
<p>안나 올레고브나 디모바 (Димова Анна Олеговна)</p>		<p>-1980.09.28 출생 -2004-2010, 연극/영화배우 -마드므와젤니투시(Мадемуазель Нитуш)와 아틀란티다(Атлантида)등 다수의 영화 출연</p>
<p>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콘스탄티노프 (Константинов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p>		<p>-1967.03.19. 출생 -소련 하키선수 -1986, 1989, 1990, 하키세계선수권대회 우승 -1998, 디트로이트 레드윙즈 미국 하키팀에 진출</p>
<p>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수리코프(Сурик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p>		<p>-1945.08.15. 출생 -1996-2004, 알타이 변경주 주지사 역임 -현 벨라루시 주재 러시아 대사</p>
<p>안드레이 말라호프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Малахов)</p>		<p>-1972.01.11. 출생 -무르만스크 주 아파티티 출신 -텔레비전 진행자, 쇼맨 -러시아 대표 TV 프로그램 "Пусть говорят(Let Them Talk)" 진행 -러시아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p>

세르게이 브쇼블로도비치
시고브
(Сергей Всеволодович
Сигов)



-1947.3.19 출생
-러시아 예술가, 시인, 작가
-Tangnrog대학교 러시아문학전공
-1985, 상트페테르부르크극장예술아카데미 Futurist's Drama (미래지향적 기술, 속도, 금속 등 주제) 전공
-Andrei Bely상 수여

인나 레오니디브나
보르두유그
(Інна Леонідівна Бордю
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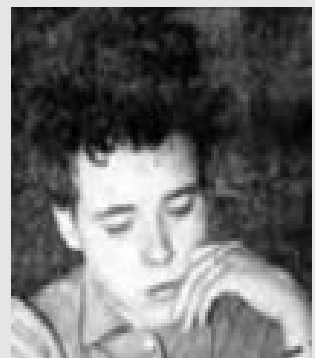
-1986.1.12 출생
-크림반도에서 성장
-우크라이나인 가수/정치인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반
대목소리

세르게이 아나톨리에비치
쿠르요힌
(Серге́й Анато́льевич Ку
рёхин)



-1954.1.16 출생
-1996.7.9 질병 요절(42세)
-작곡가, 피아니스트, 작가, 배
우, 락밴드가수, 음악감독 등
-상트페테르부르크 활동
(문화및관광위원회 의원)

나탈라 빅토로브나
코노프료바
(Наталья Викторовна Ко
ноплёва)



-1944.11.23 출생
-2011.3.15 사망(66세)
-1960-70년대 체스선수
-1959, 1961, 여성체스대회 1
위
-1967, 1972년 여성체스대회 2
위
-1965, 국제여성체스대회 1위
등 다수의 상위권 랭킹

6. 한국과의 관계

6.1 방문교류현황

- 2006.07 최재근 총영사 무르만스크 방문
- 2008.04 이병화 공사, 한성진 서기관 러 외교부와 무르만스크주가 공동주최하는 무르만스크 투자설명회에 참석
- 2012.02 전기정 해운정책관 등 12명 무르만스크 항만청과의 해운협력회의 및 원자력 쇄빙선 야말호 방선
- 2013.07 이연수 총영사 무르만스크 주 방문
- 2016.06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찬우 북극대표, 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등³⁸⁾ 한국대표단 “한-러 북극항로 협력 세미나” 참석, 문화공연단의 한국무용, 한국음악 공연, 영화 ‘건축학개론’ 상영
- 2016.07 이진현 총영사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행사 참석
- 2016.11 손일석 영사 제6회 무르만스크 비즈니스 워크회의 참석³⁹⁾
- 2018.11 권동석 총영사 무르만스크 주정부 방문, 코브톤 주지사와 면담 제7회 무르만스크 국제비즈니스 워크회의 참석⁴⁰⁾
- 2019.01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무르만스크 주정부 방문⁴¹⁾
- 2019.04 국제 북극 포럼 참석(한국 대표단)
- 2021.03 무르만스크 핵추진 쇄빙선 ‘레닌’ 대표 면담
- 2021.05 ‘한국 영화의 날’ 행사 개최
- 2021.06 고려인 동포와의 교류 프로그램 진행
- 2021.07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무르만스크 개발공사 및 관광위원회 면담
- 2024.01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무르만스크 방문⁴²⁾

38) 임광기, “무르만스크에 올려 퍼진 아리랑”, SBS NEWS, 2016년 6월 2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37320(검색: 2019년 5월 12일)

39) 31)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

4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해소식”, No.72, 2019년 2월, 5쪽.

41) 김원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무르만스크 방문”, 글로벌웹진 NEWSROH, 2019년 2월 2일,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519(검색: 2019년 5월 12일)

6.2 관련사건

무르만스크 주가 대한민국에 알려진 것은 1978년 4월 20일 대한항공 보잉707 KE902편이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무르만스크에 비상착륙하게 된 사건 때문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김창규 조종사가 이끄는 보잉707기가 파리를 떠나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로 가려고 했다. 영국해협을 지나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중 항로에서 이탈하여 스피츠베르겐 상공을 날고 있었다. 나토군의 RC-135기로 판단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민항기임을 파악한 후 발사준비를 중단했다. 보잉707기가 핀란드로 방향을 돌리자 소련 공군대령인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프의 명령에 따라 소련공군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보잉707기는 왼쪽날개에 손상을 입었다. 기장은 산소가 많은 5,000피트로 급강하했고, Su-15S 전투기가 놓치면서 기체폭발하지 않았다. Su-15TM의 유도로 소련영토인 코르피야르비 호(무르만스크 주의 남쪽에 있는 카렐리야 공화국)에 불시착하였다. 승객들은 KGB의 신분확인을 받은 후 핀란드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2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으며 생존자들 역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았다.⁴³⁾

1978년 KAL기 무르만스크 인근 호수에 동체착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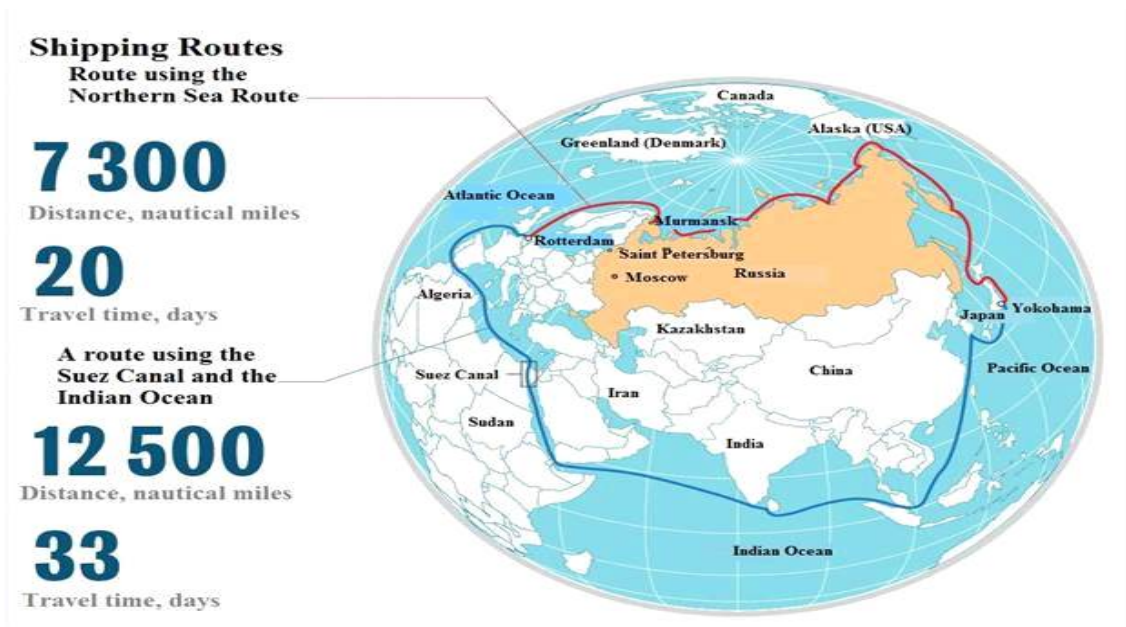


43) 심나리, “소련당국도 KAL기장의 비상착륙술에 탄복했었다”, 노컷뉴스, 2008년 6월 6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57674>(검색: 2019년 5월 12일)

6.3 북극항로

러시아의 북극항로는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로 구분한다. 전자는 그린란드 북부와 캐나다 북부를 거쳐 미국 알래스카 북쪽 해안을 따라 태평양에 이르는 항로이고, 후자는 노르웨이 북쪽 해안을 따라 러시아 북쪽 해안으로 이어져 베링해협에 이르는 항로이다. 북동항로는 소련 시기에 폐쇄되었다가 1987년 10월,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일환으로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1991년부터 외국선박에게 개방하였다.⁴⁴⁾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개척된 북동항로는 1648년에 아시아를 지나 북아메리카까지 북극항로가 완전히 개척되었다. 북극항로(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를 관리하는 기구인 북극항로관리 기구(NSRA)는 러시아 연방정부인 수송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산하기관으로 1932년 당시 소련 정부가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시장경제의 이행과정에서 관리조직이 축소되고 지역의 수송 하부구조가 붕괴하면서 북극항로 관리체계는 약화되었다.⁴⁵⁾

북극항로를 통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상운송의 경우 수에즈운하를 통한 기존의 항로 대비 40% 정도 항해거리를 단축하여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 컨테이너와 같은 해상화물은 대량화물의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의 비중이 높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선박이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인도양을 거쳐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인데,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는 거리가 2만 100km에 이른다. 그러나 북극해를 통과할 경우 거리가 1만 2,700km로 줄어들며 운항기간도 24일에서 14일로 열흘이나 짧아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항로에 비해 운항거리는 40%, 운항시간은 45%나 줄어든다.



* 출처: KOTRA 재인용(2018)

44) 김경신, “북극의 상업적 이용 전망과 정책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6월, 23쪽.

45) 김선래, 앞의 보고서, 42쪽.

외국선사가 부산항을 기점으로 북극항로 해상운송 사례는 덴마크의 컨테이너선이 처음이다. 2018년 8월 28일, 덴마크 머스크사의 ‘벤틀라 머스크호’는 2천 6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부산항의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이 최종 목적지이다. 그동안 원유나 천연가스를 실은 선박들이 북극항로를 향해한 적이 있으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해협에서 러시아 북쪽 북극해를 지나 노르웨이까지 가는 길은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1-2주 단축된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이 선용품과 연료공급 등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⁴⁶⁾ 하지만, 머스크사의 페라 라우르센 최고기술책임자에 의하면, 시험 항행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운항과 승조원의 능력에 대해 지식을 얻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수송가능기간의 한정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선에서 상업화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북극해 항로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한 아시아-유럽항로의 현실적인 대체루트가 되지 않는다.⁴⁷⁾

2017년 9월 초, 문재인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회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정부 측에 ‘9-BRIDGE’로 불리는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등 9개 분야에 걸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와의 북극항로 공동개척 관련 조선해운분야의 협력은 한·러 간 새로운 경제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외국선사들은 북극항로를 유럽과 아시아 간의 최단 국제운송로로 활용하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정부는 북극항로를 러시아 북극해 지역의 탄화수소자원을 유럽과 아시아의 외부 시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내부 수송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북극항로 상으로 수송된 화물은 대부분 벌크(bulk)화물로 러시아산 탄화수소자원(석유·가스·석탄)이 주류를 이루었다. 2012-13년에는 노르딕국가의 선사들에 의해 북극항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러시아산 석유제품들이 수송된 바 있고, 우리나라 석유제품들이 수차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해상운송 사례로는 2013년 현대글로벌비스에 의한 나프타 실험운항, 2015년 CJ대한통운의 중량물 운송, 2016년 팬오션의 중량물 운송, SLK국보의 북극항로 경유 카자흐스탄으로의 중량물 복합운송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아직 운항 사례가 없다. 현재 조선분야의 북극해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북극 야말LNG 프로젝트용 쇠빙LNG 수송선 15척을 수주하여 현재까지 9척을 건조하여 인도했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이 건조한 다수의 내빙 선박들은 이미 북극해 운송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⁴⁹⁾

46) 연합뉴스, “북극항로 향해 세계 첫 컨테이너선 부산서 출항”, 2018년 8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8134900051>(검색: 2019년 5월 12일)

47) 쉬핑뉴스넷, “머스크라인, 북극해항로 시험 항해 마쳐…컨테이너선 세계 최초”, 2018년 10월 3일,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43>(검색: 2019년 5월 12일)

48) 44) 홍성원, “북극항로의 성과와 활성화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2019년 3월 1일(검색: 2019년 5월 12일)



* 출처: KOTRA 재인용(2018)

북극해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극권 내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주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장기 외교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BRIDGE”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측과 북극항로를 활용한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성 및 북극해 협력 증진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2016년 6월, 무르만스크에서 열린 “한-러 북극해 협력세미나”에 우리나라 외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극지연구소 등 한국대표단과 북극항로항만청, 무르만스크주립북극대학교, 국립항해수로연구소 등 러시아대표단은 양국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이래로 총영사관은 무르만스크 비즈니스 워크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무르만스크 주정부를 방문한 바 있다.

2020년대 들어 러시아는 북극항로(북동항로, NSR)를 자국의 전략적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리체계의 중앙집중화, 항로 인프라 현대화, 쇄빙선 확충 등 대대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북극항로 개발계획 2035’를 채택해 화물 및 환적 시스템, 교통 인프라, 화물선·쇄빙선, 항해 안전, 관리체계 등 전방위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를 개정해 조선업 수입 대체화, 선박수리 역량 강화, 북극 협력 범위의 양자·다자 메커니즘 전환 등도 추진 중이다.⁵⁰⁾ 이 같은 정책 아래 2023년 북극항로의 화물 물동량은 3,620만 톤, 통과 화물은 215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통과 화물의 95%는 러시아-중국 간 물량이며, 원유(62%), 벌크화물(27%), 컨테이너(6%) 순이다. 러시아는 2032년까지 원자력 쇄빙선 7척을 추가 도입하는 등 항로의 상시 운항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⁵¹⁾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에 비해 아시아-유럽 간 해상 운송 거리를 30~40% 단축하고, 운송 시간도 10~14일 줄여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부산항 등 한국 주요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50) 2025 국제북극포럼 개최와 러시아의 북극 개발 방향.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4&list_no=11805&act=view

51) 쉬핑뉴스넷, “러시아 북극항로의 현재와 미래”, 2024년 11월 11일.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3>(검색: 2025년 5월 10일)

부각되고 있다. 부산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보급·정비·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친환경 선박, 쇠빙 LNG선, 해양플랜트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⁵²⁾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국내 수송로가 아닌 글로벌 물류 루트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터미널 현대화, 구조선·쇠빙선 확충, 해상물류센터 설립, 안전보장 등 종합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항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내륙수운청의 북극항로 관리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등 관리체계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항로는 기후변화, 지정학 변화, 에너지·물류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선진 조선·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의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52) “북극항로 시대, 한국을 세계 물류 중심으로 이끌 기회”, 2025년 3월 7일(검색: 2025년 5월 10일)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529ce42b-f134-4389-9c1d-6e0e5f306d6c-0-0.html>

참고문헌

단행본

- 김경신, “북극의 상업적 이용 전망과 정책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년 6월, 23쪽.
김선래, “러시아연방주체 개관시리즈: 무르만스크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7년 8월, 24쪽, 25쪽, 30-31쪽, 37-38쪽, 38-39쪽, 42쪽, 47-48쪽.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2018년 6월, 43-44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해소식”, No. 72, 2019년 2월, 5쪽.
Kalashnikov, Konopleva, Pakhomovsky, Ivanyuk, “Rare Earth Deposits of the Murmansk Region, Russia-A Review”,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Inc. Economic Geology, Vol. 111, November 2016, p. 1533.

관련사이트

- 무르만스크 주정부, <https://eng.gov-murman.ru>
러시아연방통계청, <http://mrd.gks.ru>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
무르만스크주 하원의원, <https://www.duma-murman.ru/en>
러시아연방의회, <http://council.gov.ru/en>
러시아건설/주거/공익사업부처 공식홈페이지, <http://www.minstroyrf.ru/en>
무르만스크주 법원, <http://oblsud.mrm.sudrf.ru>
무르만스크주 통계청, <http://murmanskstat.gks.ru>
Murmanland, <http://www.murmanland.ru/history.php>
무르만스크주 - Wikiwand, <https://www.wikiwand.com/ko/articles/무르만스크주>
영웅 도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르만스크 기후 무르만스크 기온 무르만스크, 러시아 날씨 평균

인터넷기사

- 김원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무르만스크 방문”, 글로벌웹진 NEWSROH,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19년 2월 2일,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519(검색: 2019년 5월 12일)
쉬핑뉴스넷, “머스크라인, 북극해항로 시험 항해 마쳐…컨테이너선 세계 최초”, 2018년 10월 3일,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43>(검색: 2019년 5월 12일)
심나리, “소련당국도 KAL기장의 비상착륙술에 탄복했었다”, 노컷뉴스, 2008년 6월 6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57674>(검색: 2019년 5월 12일)
연합뉴스, “북극항로 항해 세계 첫 컨테이너선 부산서 출항”, 2018년 8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8134900051>(검색: 2019년 5월 12일)
임광기, “무르만스크에 올려 퍼진 아리랑”, SBS NEWS, 2016년 6월 2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37320(검색: 2019년 5월 12일)
홍성원, “북극항로의 성과와 활성화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2019년 3월 1일, <http://www.kims.or.kr/peri151>(검색: 2019년 5월 12일)
쉬핑뉴스넷, “러시아 북극항로의 현재와 미래”, 2024년 11월 11일,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3>(검색: 2025년 5월 10일)
2025 국제북극포럼 개최와 러시아의 북극 개발 방향,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4&list_no=11805&act=view(검색: 2025.05.10)